



통권 19호

후원회소식

발행일/1993. 5. 13.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 (02) 763-2606, 745-5604

함께가자

박 용 수

가자

이제는 밤도 다 되었다

신새벽 되어오니

길 떠나자

눈부신 아침날

햇살을 꿈꾸며

깊은 어둠속에서 몸부림치던

젊은 날의 그 아픔 떨쳐버리고

동트는 하늘 좇아 일어서자

너도 가자, 너도 가자

모두 오너라

남은 피

마지막 한방울까지

이 땅 위에

아낌없이 쏟아버리고

빈 몸 흔들며

춤추며 가자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아산요양원을 다녀와서

문 성 원 (35세, 쌍방울 근무)

4 월 중순 어느날, 권오현 선생님과 음식통감시롱팀의 몇명의 회원들이 함께 3월 6일 형집행정지로 42년간의 영어의 몸에서 요양원이라는 또다른 닫혀진 공간으로 타의에 의해 가셔야만 했던 이종환 선생님(72세)을 찾아뵙게 되었다.

서울역에서 오전 10시경 기차를 타고 천안에 도착하니 12시쯤 되었을까?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아산 군 선장면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선생님을 만나뵙고 보니 간접적으로나마 접했던 모습과는 달리, 오랜 동안의 수형생활과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외모와 청년과도 같은 맑고도 함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그나마 형집행정지로 아직도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가슴저미는 울분이 남아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말콤. X의 유명이 거리곳곳마다 장사꾼들의 경제적 산물이 되어 명동, 압구정동 등에서 모자로 상품화되어 팔리고 있고, 남아공화국의 흑인지도자인 넬슨 만델라가 세계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게 한 동아시아 역사의 현장인 이 반도에서 42년간이라는 세계 최장기수로서 젊은 시절을 0.9평의 작은 공간 안에서 보내야만 했던 선생님!

그것도 분단된 역사의 아픈 상처를 메꾸시려고 애쓰시다가 사상의 대립속에서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던 가슴아픈 우리의 현실이 내앞에 다가섰을 때의 감정을 스스로 추스릴 수 없었다.

4월 23일에는 지난번에 다녀오지 못했던 회원들이 봉고차를 빌려타고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첫번째 뵈었을 때보다는 얼굴빛이 좋아지셨지만 홍조면 얼굴이 건강함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생긴 고혈압의 증세라기에 가슴이 아팠다.

요양원에 계신분들의 70%정도가 환자분들이라 바깥출입도 금지된다는데 42년 옥살이를 하신 선생님께 대문 밖의 야트막한 산에서 살랑이며 피어나는 봄은 차라리 '잔함'이었으리라 생각하며 선생님께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맛보는 산천이었으며 넓게 펼쳐진 아산만의 잔내음은 40여년만에 맡아보는 고향 인천 바닷가의 내음이었으리라.

빠빠용이 인간의 자유를 갈망했던 것이라면, 선생님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참된 인간의 삶을 이루

기 위해 조그마한 힘이나마 애쓰시다, 외세에 의한 또한 그 시대 권력자들의 파워게임이 진행되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젊은 노동자의 혈기만으로 조국을 사랑하셨기에 뼈빠용이나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한 말씀. X나 넬슨 만델라보다는 한민족이면서도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혈육도 멀리하신 채 오직 한민족이 하나된 조국에서 살고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젊음을 조국에 바치고자 하셨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분을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신정권 및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악법을 이용한 교묘한 방법으로 42년이라는 한 인간의 대부분의 일생을 철창에 가두었고 남은 여생도 좀더 넓어진 감옥(?)에서 보내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되도록 빨리 선생님을 서울로 모셔와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남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셨던 선생님, 감옥소 운동장 한켠에 꽃밭을 만들어놓고 채송화 씨를 뿌려 예쁜 꽃밭을 일구셨다는 선생님. 선생님은 출소하실 때에도 그 꽃밭의 채송화 꽃씨를 가져나왔다고 흰 봉투에 가득 담아 건네주셨다.

이 꽃씨를, 42년이라는 세계 최장의 수형생활 동안에도 변함없이 지켜오셨던 선생님의 뜻이라 여기며 잘 가꿔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 고마운 소식입니다. •

지난 5월 7일 일본가톨릭 정의와 평화 협의회 회장 소마(相馬信夫) 주교님이 명동성당으로 김수환 추기경님을 예방하시고, 92년에서 93년에 걸쳐 일본에서 열렸던 한국의 양심수를 위한 서화전에서 얻은 수익금과 일본 가톨릭 신자 여러분의 성금을 김수환 추기경님께 드리고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에 기부하신다고 뜻을 전하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 성금을 민·가·협 공동의장단과 유가협회장님이 함께한 자리에서 양심수후원회에 주시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소식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나의 삶 나의 일터

넉넉함속에 긴장이...

이 선 영 (24세, 이대병원 간호사)

기 상시간 새벽 5시.

이제 막 떠오르는 해를 보며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환자들이 기다리는 병원으로 향한다. 텅빈 버스에 오르면 아무거나 잡는 자리가 내 자리다. 만원버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어찌면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에게겐 가장 큰 기쁨일 것이다.

버스를 타고가다 새벽마다 흔히보는 광경이 있는데 그건 동대문시장의 상인들이 부지런히 일을 끝내고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봄이지만 쌀쌀한 새벽한기를 녹여보려는 듯 페인트 칠통에 불을 지피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그때마다 항상 '새벽에 나가는 건 힘들다. 좀 더 잘 수 있다면...' 하는 생각들과 졸음이 깨끗이 사라진다. 저 사람들이 열어놓은 밤을 이어나는 새벽을 일군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찬 여유로운 나의 하루의 출발은 잠시뿐, 화장실 갈 찜조차 없이 일들이 가득 차 있고, 아침·점심 끼니 거르기는 환자보듯이(?) 한다.

병원에서 일한 지 한달 8일된 신출내기 간호사라 일이 손에 익지도 않지만, 그많은 일들을 빠짐없이 해내야 한다는 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한다. 특히나 환자를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안되는 것이니만큼 온통 긴장

한 상태로 일해야만 한다.

실수는 곧 '실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라고 명명되니까....

하지만 끊임없는 긴장속에서도 기쁨은 찾아온다.

내가 일하는 곳은 산부인과 병동이라 출산한 산모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랜 진통 끝에 생산된 생명을 보듬어 안은 산모들은 세상을 안은 듯이 파사로워 보이고 푸근하게 보인다.

기쁨으로 가득찬 어머니의 얼굴과 감동과 감사로 옆에서 즐겁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찌면 해방이란 저런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넉넉해짐을 느낀다.

분만실과 산부인과 병동은 따로 분리되어 있어 지금은 분만과정에 참여하진 않지만, 학생 때 분만실에서의 살 떨리는(?) 감동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가슴에 박혀있다.

'생명의 탄생은 어떤 걸까?', 막연한 호기심에서 분만실로 들어섰고 산모는 듣기 민망할 정도의 소리를 질러댔고, 고운 얼굴은 일그러질대로 일그러져 있었다.

호기심이 약간의 거부감으로 바뀌어 가는 것만 같았다. 산모의 손을 잡고 있었던 나는 손을 빼고 싶기도 했지만 - 산모의 힘 때문에 눈물날 정도로 아팠다 - 뺄 수 없었다. 오랜 진통 끝에 분만대로 산모는 옮겨졌고 아기의 머리가 보이고

이내 팔뚝만한 아기는 거꾸로 들린 채 울기 시작했다.

나도 울었다. 생명의 신비로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 감동에 울었고 나를 낳을 적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며 울었다.

그때 분만실은 아기 울음소리에, 실습나간 우리들의 훌쩍거림, 산모의 아기를 바라보며 흘리는 기쁨의 눈물로 뒤섞여 괴상한(?) 소리로 가득했음을 기억한다.

그 감동을 산모를 보면서 다시 되새기게 된다.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간직하고 삶을 산다면 세상은 아름다울거라는 생각도 요즘은 자주 한다.

점심시간에 자기 식사를 다 밀쳐놓고 애기방에 엄마의 따뜻한 젖을 주기 위해 수유시간이 시작되기 무섭게 달려가는 모정 때문에, 식후에 산모에게 주는 약을 주려고 가면 텅빈 침상이라 병실에 몇번을 다시 왔다갔다 해야 겨우 나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지만 마음은 기쁘다.

그러고보면 긴장속에 넉넉함이라기 보다 넉넉함속에 긴장을 가진 것이 내가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 병동의 특징인 것 같다.

하지만 항상 넉넉함과 기쁨만이 있는 곳은 아니다. 위험한 산모에서, 유산한 사람, 부인과 계통 암환자와 같이 고통과 아픔으로 그늘진 부분도 있다. 산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둡고 병든 사람들에게 솔직히 더 많은 손길과 관심이 가게 된다. 처음 병원에서 일하면서부터 가까워진, 죽음을 앞둔 할머니도 있다. 옆에서 손잡아 드리고 조그만 관심을 표현하고 이야기 들어드린게 할머니께는 큰 것이었는지, 항상 날보면 웃으시고 손을 잡으신다.

하지만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얼마뿐이고

나는 일에 쫓기며 “할머니, 다음에 우리 계속 이야기할까요?” 하며, 다른 병실로 메뚜기처럼 뛰어다녀야 한다. 그때같이 안타까울 때가 없다. 전엔 진통제도 자주 찾으시더니 이제는 진통제 주사도 하루에 2번 정도 밖에 찾지 않으신다. 그만큼 고통에 무더질 정도로 병이 진행된 것 같다.

눈앞에 날 절실히 필요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과 일에 쫓겨 혁혁대는 지금이 싫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밥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으면서, 환자의 요구를 귀담아 들을 시간도 없으면서, 병원 윗분네들이 쉽게도 이야기하는 ‘전 인간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루에 수도없이 뇌까린다. 인력보충은 생각도 않고 전인간호(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총체적인 인간을 놓고 다방면으로 접근하는 간호)라니...,

허울좋은 말 뿐이며, 억지며, 착취다.

어쨌든 병원은 내가 새롭게 출발한 소중한 일터임에 틀림없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기에 더더욱 모순점을 확실히 깨뜨려야만 하는 사람사랑과 개혁의 길이라 생각된다.

나의 삶은 사람사랑의 길ियो, 나의 일 또한 사람사랑의 일이므로 삶과 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나의 큰 과제이다.

아직은 일도 어설픈 신출내기 간호사, ‘내가 노동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곤하는 덜된 병원 노동자이지만 진짜 노동자로 서기 위해, 진정한 참간호 실현과 국민건강권 쟁취의 그날에 당당하기 위해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을 나의 일터인 병원으로 매일 새벽 기쁘게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 양심수 가족을 찾아서

〈전대협 제3기 의장 임종석 어머니, 김정숙 님 편〉

꿈에 종석이 보고나면 기자회견 장면 보게 돼요

홍 전 영 (27세, 학원강사)

“**독** 재자를 몰아낸 뜻깊은 4월 혁명 33돌을 맞은 오늘, 우리 종석이에게 분에 넘치는 이 영광스런 상을 주신 4월 혁명연구소 여러 분께 종석이를 대신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은 더 훌륭한 분께 드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종석이에게 주어졌다해도 그것은 조국사랑에 떨쳐나선 백만청년학도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석이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학생들의 헌신적 노력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6일 홍사단 강당에서 있었던 4월 혁명상 수상식에서의 제3기 전대협 의장 임종석의 어머니이신 김정숙 전 민가협 상임의장의 수상소감이었다.

재야운동 중에서도 언제나 앞서가는 투쟁의 대명사랄까, 민가협의 상임의장을 맡았다면 얼마나 억세고 무서운 분일까 하는 예상은 한갓 쓸데없는 염려일 뿐이었다. 자식이 3년 넘게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너무 태연하고 여유있게 웃음을 잃지 않고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한다. 수십년 옥고를 치르는 가족이 있으니 (특히 누구를 지명하며)

그런 어머니 말씀을 듣는 게 순서라고 굳이 사양하는 것을 억지로 줄라 몇 말씀을 듣게 되었다.

“가장일 말고는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로서 어느날 종석이가 총학생회장에 출마하겠다고 하기에 죽자고 반대 했었지요. 자식이 감옥가는 일을 좋아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학생회 간부라면 으레 구속되고 그것도 국가보안법으로 무슨 반역이나 한 것처럼 떠들어 대는 판에 어느 학부모인들, 학생간부되는 것을 원했을 것인가. 그러한 염려는 전대협의장에 당선되고부터 곧바로 나타난다. 89.2.14. 아침 신문에 아드님의 수배령이 내려진 것을 본 부모님들은 놀라면서도 속수무책이기도 했다. 아니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한꺼번에 여덟명이나 되는 경찰이 들이닥쳐 종석이를 찾아 내라고 야단이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집의 평화는 깨졌지요. 경찰이 언제나 죽치고 있으면서 미행과 협박을 하고 공포와 긴장이 계속되었어요.”

자식이 수배당한 부모들은 말할 수 없이 고단했다. 마음놓고 먹을 수도 없고 편안히 잠잘수도 없었다. 전화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아들이 어

도로 피해 다니는지, 밥이라도 먹고 있는지 추운 날 얼어 죽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혼자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다.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날 뜻밖에도 위로 받고 의지할 곳을 찾게 되었지요. 바로 민·가·협이었어요.”

민가협을 찾게 되면서부터 감시와 협박, 공포와 절망에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선배 어머니들의 경험담을 듣고 직접 교도소로, 법무부로, 법원으로, 정당·사회 단체를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아드님에 대한 이해와, 왜 고통을 자청하면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배워가게 되었다. 닭장차에 실려가고 세멘트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는 동안 강철은 더욱 단련되어 가고 있었던가.

1989. 6. 30 평양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임수경 학생이 전대협 대표로 간 후부터 경찰의 감시와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아들 둘이 모두 직장에도 못가고 다른 식구들도 아무일도 못하게 되었다. 경찰들은 차를 집 앞에 세워 두고 종석이를 찾아내라고 난리들이었다.

“왜 직장도 못다니게 하느냐고 항의하면, ‘주먹만한 새끼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까짓 직장이 문제냐’고 고함치며 한양대를 아예 쑥밭을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었어요.”

부모된 마음은 경찰의 협박보다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더 큰 걱정이었다. 대학마다 수십 차례 다 뒤졌지만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대협위원장 임종석은 현대판 홍길동처

럼 서울과 지방의 캠퍼스에, 집회장에, 번번이 얼굴을 보이며 기자회견을 하곤했다. 무려 11번이나.

“이상하게도 종석이가 꿈에 보이면 어디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경우가 많았어요. ‘살아있었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다가도 그때마다 득달같이 달려오는 경찰과의 입싸움에 시달려야 했지요. 그러한 긴장된 세월이 1년간 계속되었어요.”

저렇게 눈에 심지를 박고 수많은 경찰들을 풀어 잡으려한다면 어찌 그 그물에서 빠져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잡히게 된다면 얼마나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고문당할 것인지... 그래서 제발 잡히지 말아달라고 어떤 절대적인 힘 앞에 빌어보곤 했다한다.

그런 어느날이었다.

1989. 12. 18. 아침 8시 15분 뉴스특보가 있었다.

‘전대협 의장 임종석 체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혔어요. 정신없이 청량리경찰서로 달려가 애원을 하였지만 종석이를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이런 일은 많은 민가협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겪은 아픔이었지요. 그래서 내아들, 네딸 가리지 않고 어머니들이 뛰어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연일 신문, TV 등 언론매체들은 임종석과 전대협이 마치 반역집단인 것처럼 수사당국의 발표를 실어대고 있었다. 온 식구가 이땅에서 버림받은 듯한 착각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리고 1990. 2. 26 첫재판이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교대역에서부터 법원 주변 모두가 전경으로 채워지고 정문에서는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가게 되었지요. 법정에도 사복입은 전경과 교도관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진정 청년학생들은 뒷전에 밀려야 했어요.”

삼엄한 법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전대협 진군가’를 부르고 ‘국보법 철폐’ ‘의장님 석방’을 목이 터지게 외쳤다고 한다. 학생들과 전경들의 몸싸움, 폐정하고 다시 개정되는 숨막히는 여러 차례의 재판이 끝나고 1심에서 10년을 선고받는다.

어머니는 세번째 기절을 했다. 수배령 내렸을 때와 붙잡혔을 때, 그리고 선고받는 날 그랬다.

그러나 어머니는 왜 전대협 대표가 평양을 가야했는지, 학생들이 탄압을 받으면서도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아드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믿음이기도 했다. 변할 수 없는 믿음. 조국을 사랑하는 청년의 기백과 열정이 자랑스럽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는 스스로, 이땅에 민주화와 자

주통일이 되어야만 애국청년 학생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도 가지게 된다.

말에 앞서 실천하는 어머니들과 함께 아픔을 겪으면서 민가협역의 역할도 익혀나가게 되고, 찬바람속에 내몰린 자식들을 대지처럼 품어주고 태양처럼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으로 구해야 한다는 확신도 서게 된다.

지난해 1년 그 어느 때보다 공안 칼바람이 드세고 ‘사노맹’ 사건과 ‘민족해방 애국전선’ 사건으로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민가협 회장으로의 큰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었던 것도 ‘옳은 일에 무서울 것 없다’는 몸에 밴 확신 때문이었다.

연일 보도되던 3. 6 사면(?) 조치 때의 ‘나온다... 못 나온다...’에 마음줄임도 많이 했지만 정작 제외되었을 때의 심정은 가슴아픔 이상의 고뇌를 갖게되었으리라... 60개월 중 40개월 19일이 된다는 이날도 어머니는 의연한 모습이었지만, 자식사랑의 아픈 마음만은 이 필자에게도 전해져왔다.



(양심수후원회 제5차 총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김정숙어머니. -왼쪽부터 다섯번째)

현대사의 분단비극이 잠시 머무른 곳

이 기 형 (시인)

현 재 등산 모임은 서울에서만도 아마 수백개 일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건강, 화합, 기분전환을 위한 단순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중 한 모임만은 그 이상의 가늠할 뜻을 지니고 있다. 그는 다름아닌 민가협(민간가협) 양심수후원회 등산모임이다.

다달이 나오는 후원회소식지 맨뒤 끝난에는 회비를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이 실려있는데 대부분 정식 이름이지만 개중에는 '무명' '후원자'라고 기재돼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성금 내역을 보면 3천원에서 2만원 정도이다. 이렇게 모아진 돈이 양심수 영치금이나 장기수, 출소자들의 '만남의 집' 마련들에 쓰여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눈물겨운 정성의 돈이 아닐 수 없다. 30년, 40년 이상 처참할 정도로 외롭게 지내던 장기수(당사자들은 이 호칭을 매우 싫어한다) 분들이 뜻밖에도 불쑥 영치금을 받았을 순간의 기쁨과 감격을 어디 한번 상상해보라!

필자는 진작부터 이 등산모임에 한번 끼이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끼이는 기회를 좀처럼 갖지 못했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25일 이 등산모임에 끼이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우이동 버스 종점에 도착한 것은 집합시간 10분 전인 9시 50분이었다. 날씨는 아주 맑은 전형적 봄날이었다. 뜻밖에도 최남규, 황용갑, 조창손 세 선생을 만났다. 여간 반갑지 않았다. 이어 백범 연구소장 곽태영 선생도 만났다. 참으로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정 회원과 새로 입회했다는 단대생과 시립대생을 합친 우리 일행 40여 명은 원색의 물결 무늬를 일으키며 떠났다.

천년 숲속을 뚫고 괴암기석을 따라 탄성을 터뜨리며 석불사 골짜기를 올라갔다. 소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사이사이 성큼한 큰키를 자랑하며 서있는 연분홍 진달래가 흥취를 돋우웠고 간간이 연보라색 산수유꽃도 눈에 띄었다. 한 나라의 수도에 이렇게도 웅장 수려한 바위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서울 시민의 커다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우이동, 도봉산, 백운대, 인수봉같은 대자연의 멋진 위용을 갖춘 수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한다. 이렇게도 혜택받은 대자연 서울을 이북 형제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남쪽의 우리들만이 바라보고 감상하는 기막힌 분단현실에 새삼 가슴이 아팠다.

골짜기에서 능선으로 오르는 중턱에 넓직한 곳에

이르러 자리잡고 앉았다. 회장님이 인사말을 했다. 오늘은 이 등산모임의 일주년 기념일이란다. 동시에 33년전 4.19 혁명이 있었던 의의깊은 달로 당시 대학생으로 직접 항쟁에 참가했던 곽태영 선생을 특별히 모셨다고 했다.

곽선생은 33년전 그날의 실제 투쟁과 발사 모습을 눈에 보이듯 잘 설명해 주어서 우리들은 몸서리치는 의분과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받았다.

다음, 지난 일년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한 이정규 회원에게 기념품 수여가 있었다.

각자 개인 소개에 들어갔을 때 시립대 이혜숙 학생의 “다음에는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평양을 거쳐서 백두산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이말은 실로 남쪽의 모든 등산인 아니 모든 국민이 한결같이 갈망해 마지않는 소망이 아닐 수 없다.

신광현(20년 옥살이) 선생도 옛일을 회상 하였다. 즉 33년전 4.19 혁명으로 장면 정권이 들어서자 대구에 있는 몇몇 뜻있는 동지들이 사재를 털어 혹은 풍돈을 모아 어렵사리 ‘주간 노동자 신문’을 발간해 대단한 호평을 얻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숨어서 고생고생 신문을 만들어 손에 손을 거쳐 노동자, 학생, 근로자, 시민들에게 읽혀져 당시 하나의 선도적 불빛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뜻깊은 역사적 실천의 증언이 아닐 수 없다.

최남규, 조창손 선생은 이름만 소개했고 오랫동안 지리산에서 싸운 황용갑 선생은 빨치산에게 ‘시간은 생명’이었다며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시

간 임수를 당부했다.

장기수 네 분의 옥살이 년수를 보면 최남규 29년, 황용갑 34년, 조창손 30년, 신광현 20년으로 실로 전생애의 반을 그나마 인생의 황금시기를 옥중에서 보냈다는 놀랍고도 눈물겨운 사실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등산모임이 잠시 머문 이 북한산 중턱을 ‘비극적 분단사가 잠시 머물은 자리’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식사 후 재미있고 신나는 놀이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우선 단국대학교 법사회학회 학생들의 노래 지도가 있었다. ‘조개껍데기’ ‘웅달샘’ ‘바다속의 통나무’라는 단순하고도 이색적인 노랫말을 울동과 손짓을 섞어 부르는데 아주 흥겨웠다.

연로한 몇분을 제외한 젊은이들은 유신말기 반체제 인사로 이곳에서 조난당한 이창렬 교수의 기념비가 있는 능선 오른쪽 정상으로 올랐다. 소나무 사이에 진달래가 무더기로 피어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환히 내려다보였다. 우리들은 ‘보인다! 통일!’을 일제히 목청을 돋우워 외쳤다. 속이 후련했다. 권회장은 손짓을 해가며 설명했다. 서쪽은 인수봉 위문 만경봉, 북쪽은 만장봉, 자운봉, 오봉이라고. 놀이터 지점으로 되 내려가는 코스는 험했다. 바위틈을 간신히 빠지고, 바위 너덜을 지나고, 밧줄에 매달리고,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건너뛰고, 어린 여학생들도 신기할 정도로 잘도 내려갔다. 정신력과 체력단련의 덕택일게다. 팔십을 바라보는 필자도 젊은 이들의 뒤를 따르며 자못 미소를 금치 못했다.

1993년 5월 7일 독립문 옆에서 씀

■ 산행기

하나가 되는 시간

단국대 법사회학회* 공동창작

전 날 마신 술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는 상태.

9시 약속, 무거운 몸을 세워 서둘러 학교를 향해 나섰다.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태양이 너무나도 높ی 솟아 있었다. 28번 버스에 몸을 맡긴 우리는 정시보다 약 40분 정도 늦게 약속장소에 도착했다.

시간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어긴 것과 여러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 때문인지 뒤가 영 개운치 않음을 느끼면서 예정시간보다 늦게 산을 타기 시작했다.

이쪽저쪽 한패 한무리가 되어 서로의 화제에 맞춰 이야기를 나누며 산중턱에 이르러 점심 해결(물론 점심식사 시간이 우리 법사회학회의 문제아들로 인해 또한번 지연되긴 했지만 그일은 생략한다)과 점심을 전후로 한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심을 전후로 한 시간은 여러 선생님들의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살아오셨던 인생역정과 고난, 그 속에서의 참기쁨, 참보람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 등반에 대한 진정한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하나가 되는 시간을 보낸 우리 일행은 다시 정상을 향해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목적지를 향해 오르 고 내리는 그 사이사이에 할아버님들의 힘찬 모습, 그 환한 얼굴에 도무지 힘겹다거나 어렵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었다.

산을 떠난 우리 일행은 고대 앞 어느 주점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진 후 뒷 풀이를 하며 또한번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돌아오는 길, 그 길은 정말 아쉬운 길이었다 (이 길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 몇개 안될 그런 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사실 학회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선배, 후배, 동기들과 한권의 책, 하나의 사건을 놓고 장시간 열띤 토론을 하고 웃고 그름을 따지다보면 자연 서로간에 불만이 생기고 또한 이것이 진정 진실인가, 아

* ('90에서 '93학번으로 이루어진 법대생으로, 현재 후원회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주고있는모임입니다.)

니면...?하는 의구심과 갈등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를 통해 우리는 먼저 걸어가신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그 사건, 사실 하나하나를 다 시금 전해들음으로써 의구심을 제거하고,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할아버님, 선배 동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람의 자주성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 법사회학회



편지를 보냅니다!

• 후원회원 여러분!
• 봄햇살이 따사롭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곁에는 봄기운을 느낄 겨를도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세상 가득한 봄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정성어린 편지 한 장이 15척 담장안 그늘진 곳에 햇살로 번질 것입니다.

*** 홍경선 선생님(대전 3501) / 1925. 5. 21생(69세) / 1967. 9. 17 구속, 무기형, 26년 복역**

충북 조치원 출생. 청년시절부터 남로당 지하운동에 참여하다가 전쟁전 입산한 구빨치산으로 6지대에 소속돼 소백산맥에서 주로 활동했다.

52년 무렵, 금강정치 학원에서 학습하였고 그후 송도 정치경제대학에 추천돼 3년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후 함경남도 단천 마그네사이트 공장의 직업동맹위원장으로 있다가 60년대 남으로 오게 되었다.

오랜 투옥생활 중에서도 혁명가적 원칙과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분으로 옥살이로 얻은 폐결핵과 위장장애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항상 낙관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 장병락 선생님(대전 3645) / 1934. 7. 25생(60세) / 1962. 4. 5 구속, 무기형, 31년 복역**

강원도 원산 출생. 6.25전쟁이 끝날 무렵 인민군에 지원 입대하였고 그후 당중앙 연락부에 소환되어 일하다가 62년 동료 5명과 함께 체포.

30여년이 넘는 수형생활 동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켜오고 있으며, 오랜 옥살이로 위장병과 결핵 등으로 시달리고 있으나 교도소에서 배운 요가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 안영기 선생님(대전 3530) / 1929. 6. 19생(64세) / 1962. 8. 12 구속, 무기형, 31년 복역**

부산 출생. 소학교 고등과 수료 후 소학교 교사로 있다가 해방이 되자 한국은행 공채에 응시, 서울 본점에 근무하기도 했다.

인민군 서울 입성시에는 의용군에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는 평양건설대학 건축학과에 진학, 평양건설국 지도원으로 활동하다 60년 소환되어 62년 남으로 오다 체포되었다. 대교도소에 이감되어 생활하던 중 '붉은별' 사건에 연루되어 5년형을 추가 받았으나 끝내 전향을 거부하고 의연하게 생활하고 있다.

.....주 소.....

대전교도소 : (305-251)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번지

■ 알려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 4.1 - 양심수후원회 1차모임이 있었습니다. (11시, 민가협 사무실)
- 성가병원에 입원 중이신 최남규, 이종, 이내선 선생님을 방문했습니다.
- 봉천동 만남의 집을 방문해 생계지원비를 전달했습니다.
- 4.2 - 독일 토요일기도회(장주범 씨)에서 성금 378,98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4.4 - 후원회원 소수영, 박소연, 김동원 님과 함께 성가병원에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4.5 - 후원회원 신유호, 임은영, 문성원 님과 함께 아산요양소에 계신 이종환 선생님을 방문했습니다.
- 문화영화 '새'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 4.6 - 이내선 선생님이 C.T촬영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부디 건강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L.A 양심수 자녀돕기 모임서 성금 30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화 민주동문회 장기수후원회를 방문해 후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4.7 - 후원회 4차년도 (92년) 재정에 대해 진관스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 회원분들과 '탕제원' 으로 이내선 선생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4.8 - 후원회 총준위 2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 4.9 - 총회 관련으로 한겨레신문사를 방문했습니다.
- 권영환 님 서화전에 다녀왔습니다.
- 4.10 - 각 단체와 후원회원에게 5차 총회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 민가협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4.11 - 단국대 법사회학회 여러분들과 만나 후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4.12 - 현대교회에서 성금 500,000원(5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 신부님(지도위원)을 방문해 후원사업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 4.13 - 민가협 전제순 어머니(민애전 사건)와 한양대 총학생회장 김정기 씨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후원회원 이대팀 등과 함께 봉천동 만남의 집을 방문해 김석형 선생님의 생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 4.14 -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한 단식농성에 격려방문을 다녀왔습니다.
- 4.16 - 4월 혁명연구소 주최, 4월 혁명 33주년 기념 '4월 혁명상 시상식'과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 이날 시상식에서 민가협 임종석 어머니가 4월 혁명상을 수상했습니다.
- 후원회원 황운경 씨의 초청으로 영화 '사라피나'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 시립대팀 회원분들과 함께요.
- 4.17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5차 총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 참여해주신 회원여러분들과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4.19 - 4.19 수유리 답을 참배하고 왔습니다.
- 4.20 - 민가협 어머니들이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갔다가 전원 연행되어 잠실과 공항쪽에 두차례 버려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 박노해 어머니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4.22 - 회원사업 기획모임 회의가 있었습니다. (7시, 사무실)
- 음성 '꽃동네'에 계신 유한옥, 김광삼 선생님을 만나뵈려 문규현 신부님, 권낙기, 최현숙, 권오현 선생님이 내려갔으나, 꽃동네 측의 면회사절로 만나뵈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 4.23 - 후원회원 음시통팀이 아산요양원에 계신 이종환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 김호현, 문성원, 이정규, 이득행, 안병길, 김혜순, 신현부 님이 함께 했고 선생님을 모시고 삼교천 제방 등을 돌았습니다.
- 4.24 - 강경대열사 2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명지대)
- '나눔의 집' 건립을 위한 불교인권위 서화전에 다녀왔습니다.
- 4.25 - 후원회 4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10시, 북한산)
- 40여명의 후원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산행을 했습니다.
- 이날은 특별히 후원회가 산행을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로 그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모범회원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 4.26 - 민가협 어머니들이 양심수석방과 관련해 국회에 항의방문을 다녀오셨습니다.
- 후원회원 나명주, 손일순 님과 함께 수유리 만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 4.27 - 소식지 18호를 발송했습니다.
- 장기수 선생님께 <말>지를 발송했습니다.
- 4.28 - 민가협 임시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 황대권 옥중서간집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6시, YWCA강당)

- 김세진 열사 8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 4.29 - 장기수 81명과 5년 이상 양심수 14명에게 각 15,000원씩 영치금을 발송했습니다.
- 4.30 - 출소장기수 아홉분과 봉천동 만남의 집에 생활지원비를 전해 드렸습니다.
- L.A 양심수 자녀돕기 모임의 성금을 장창호(민애전 사건) 자녀, 최호경(민애전 사건)자녀, 김태룡 자녀에게 전달했습니다.
- 왕영안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 재독 양심수후원회에서 출소장기수 집마련을 위해 성금(1,502,28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 먼 이국 땅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이영숙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회원 동정 *

- 후원회원 '여울' 팀의 김언경, 최대식 씨가 지난 4월 11일 올림픽 공원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경구 선생님이 길놀이 맡음을 해주셨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 후원회원 강옥현, 김명룡 님이 지난 5월 1일 혼례를 올렸습니다.
여러 회원분들이 식장에 참석해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서로 기대며 넘어주는 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후원회 부회장이신 윤정모 선생님이 지난 4월 '단재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회원 모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음시롱 팀의 김길자 님이 5월 5일 약혼식을 하셨습니다.
예비신부가 되신 길자언니께 하고 싶은 말은...? "축하합니다!"
- 5월 22일은 김중종 선생님과 이두균 선생님의 생신이십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 광고 *

후원회원 전경진 씨가 일하고 계시는 기획모임 「사람들」에서 민족비극의 6월을 맞아 전쟁을 소재로한 영화들을 상영한다고 합니다. 민족분단의 6.25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한반도를 핵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소/지하철 2호선 봉천역 하차 TEL / 882-1043)

■ 상영 프로그램

1. 백색의 계절(감독 : 유잔 펠시, 주연 : 말론 브란드)
6/6 (일) 3시
2. 하안전쟁(감독 : 정지영, 주연 : 안성기, 심혜진)
6/13 (일) 3시
3. 그날 이후 : 6/20 (일) 3시
4. 은마는 오지 않는다(감독 : 장길수, 주연 : 이혜숙, 전무송)
6/27(일) 3시

*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

- | | |
|-------------------|-----------------------|
| 1. 강옥수 (허인회 어머니) | 7. 서울대 동아리연합회 조국통일위원회 |
| 2. 안영실 (여, 안양) | 8. 여인경 (남, 중화동) |
| 3. 김광철 (남, 개포동) | 9. 구호승 (남, 을지로1가) |
| 4. 권정선 (여, 화성군) | 10. 김병화 (남, 노량진) |
| 5. 문희주 (여, 월계동) | 11. 강우근 (남, 3.6석방자) |
| 6. 하기호 (남, 전북 김제) | |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심수 석방사업 작극지원
2. 장기복역 양심수 후원사업 (정기적 영치금 발송, 책자, 영치품 지원)
3. 시국사범 후원사업 (비정기적 영치금 발송)
4. 석방된 장기복역 양심수의 생계지원 생계터전 마련사업
(구로동 '민남의 집' 운영)
5. 장기복역 양심수, 석방자 중 무의탁자와 자매결연 추진

○ 이용하철 송금구좌 ○

제 일 은 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서울신탁은행 15701-89000531 (양심수후원회)
국 민 은 행 006-01-0601-098 (양심수후원회)
농 협 053-01-112692 (양심수후원회)



후원회소식

보내는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110-542)

받는이: